

tic accuracy of mos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Based on aspiration cytology samples, the subclassification of lymphomas is readily achieved.

16. 다발성 골수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탐식성 형질세포가 증식한 1례 보고 -

순천향대학부속병원 해부병리과
곽정자, 권계현, 김동원, 진소영, 이동화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에서의 탐식성 형질세포의 출현은 매우 드물어, 1908년 Lowley 등의 보고 이후 세계적으로는 20례 정도, 국내에서는 1례가 보고되어 있다. 발생빈도는 전체 다발성 골수종의 1.3%이며, 탐식성 형질세포는 주로 적혈구계 세포를 탐식하여 다발성 골수종에 있어서 빈혈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복벽종괴로부터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하고 추후검사로 확진한 적혈구와 혈소판을 탐식한 형질세포의 증식을 보인 다발성 골수종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68세 여자환자로서 약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구 돌출을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한 후 좌측 안와의 혈관종 의심하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좌측 상복부 복벽에 $3 \times 3\text{ cm}$ 크기의 단단한 종괴가 촉지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소견상 다수의 동일한 모양의 비정형성 형질세포들이 도말되었고 일부 세포의 세포질내에 적혈구를 탐식하고 있었다. 검사 소견상 혈색소 11.1 g/dl, 헤마토크리트 32.4%, 백혈구 $5,200/\mu\text{l}$ 이었고 총단백이 11.4 g/dl (A/G ratio 0.52)로 증가되어 있으며, 혈청 칼슘 8.6 g/dl, creatinine 0.8 mg/dl이었다. 혈청단백전기영동에서 γ -globulin region에 M-peak가 관찰되었고, 면역전기영동에 의하여 IgG, kappa로 확인되었다. X선 소견상 두개골에 골융해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골수도말검사에서 전 골수세포의 약 30%가 미성숙한 형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세포질내의 적혈구와 혈소판을 탐식하는 세포가 다수 관찰되었다. 안와 종괴의 조직소견은 뚜렷한 핵인을 가진 동일한 양상의 미성숙한 형질 세포가 판상으로 증식하고 있었으며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kappa light cha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다.

17. Ki-1 양성 대세포 림프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Ki-1 positive large cell lymphoma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권계현, 곽정자, 김동원, 진소영, 이동화

Ki-1 양성 대세포 림프종은 주로 T세포로부터 소수에선 B세포로부터 기원하며 소아에 많고 대부분 림프절비대 또는 피부병변이 나타나고, 예후가 불량하며 형태학적인 특징은 크고 세포질이 많은 대형성세포들이 B세포지역은 보존되어 있으면서 동양구조를 흔히 침윤하여 때로 전이성암종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또한 면역조직화학검사상 leukocytic common antigen은 약한 양성이나 음성이며, epi-